

사 회

“학교 일진 사라졌다고? 천만에...”

광주경찰 작년 단속 후 “없어졌다”... 학생들 “여전히 활개”

#1. 광주시 북구 한 중학교에 다니는 A(16)군은 최근 PC방에서 선배의 이용요금을 대신 결제했다. 갑자기 전화를 받고 찾아갔는데 “돈이 없으니 네가 대신 계산해라”는 학교 일진 선배의 말을 거절할 수 없었다. A군은 이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마땅히 고민을 말할 곳이 없다.

#2. 광주시 서구 한 중학교에 다니는 B(16)양은 매주 친구 2명과 함께 광주시 동구 구시청 뒷길 부근 노래방을 찾는다.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B양은 자신보다 더 어려 보이는 학생들이 있으면 협박해서 화장품 살 돈을 마련한다. B양은 “뺨을 한 두 대 때리면서 협박하면 신고도 못한 다”고 말했다.

학교폭력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일진이 사라졌다”라는 경찰의 입장과는 달리 일부 학생들은 여전히 동료 학생들에게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도 일진과 학교폭력이 존재하고 그 수법도 다양해 졌다는 것이 학생들의 말이다.

1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상반기 광주지역 62개 중·고등학교 270여명의 학생들을 ‘일진 학생’으로 분류해 집중관리에 나섰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7곳, 서구 9곳, 남구 10곳, 북구 18곳, 광산구 13곳 등이다.

경찰은 폭행갈취, 집단 따돌림 등 학교폭력을 저지르거나 저지를 것으로 우려되는 학생들을 일진으로 규정

했다.

이후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하면서 일진과 폭력서클이 발견될 경우 형사 입건하거나 탈퇴서약까지 받았으며, 최근 일진이 모두 사라졌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하지만 학생들의 주장은 달랐다. 일진 학생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또 다른 일진이 생겨나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유형도 금품갈취, 폭행, 모욕, 따돌림 등으로 정부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은 1년전과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일진들 사이에서 서열이 만들어져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학교폭력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3일까지 ‘117 학교폭력신고센터’에 접수된 광주지역 학교폭력 신고도 2303건에 달했다.

남구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C(17)군은 “경찰과 학교만 모를 뿐 일진은 여전히 있다”며 “일진들은 학생들을 직접 때리거나 돈을 뺏지 않고 ‘이진’이라 불리는 학생들이 대신해서 협박과 폭행을 하고 있다. 나도 한때는 이진이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를 만들어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사실 단속이 강화되면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의 수법이 교묘해진 점도 있다”고 말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우회도로 곳곳 ‘구멍’

광주~화순간 국도 남문대로 확장공사 중 통행량 확보를 위해 만든 우회도로(북동삼거리~남계마을 구간) 곳곳에 3~15cm의 구멍이 파인 채로 방치돼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다. 이 도로는 상습 교통체증 구간인 데다 기존 도로에 비해 휘어지는 노선이 많아 자칫 방심했다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여수 금고털이 공모 경찰 5년전에도 범행”

고소사건 재판서 언급

‘여수 현직 경찰관 금고털이 사건’과 관련 해당 경찰관과 범인의 공모 사실이 이미 5년 전 한 고소사건에서 언급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과 검업체 대표의 지인 A씨가 무단으로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 밝혔다.

선관위 조사 결과, 발견된 투표함은 지난 11월 20일 경기도 소재 제작업체 대표의 지인 A씨가 무단으로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투표함은 불량으로 폐기 처분될 예정이었다.

A씨는 물건을 담는 용도로 쓰려고 빈 투표함 2개를 가져왔다. 이후 A씨의 누나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광주 북구 자신의 아파트로 가져왔다가 지난 30일 아파트 음식물 쓰레기통 근처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관일기자 cki@kwangju.co.kr

금고털이범 박씨와 김모(44) 경사가 그동안 미제로 남아있던 금고털이 사건을 함께 저질렀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당시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J씨는 “금고털이범 박씨와 친구 사이인 김 경사가 여수 은행 절도 사건의 공범이고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씨는 금고털이범 박씨의 여수 안산동 출혈 현금 지급기 도난사건과 우두리 새마을 금고 현금 도난사건 등 추가 범행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5년 전 이 같은 사실에 근거해 박씨에 대해 수사했으나 박씨가 이를 전면 부인하자 물증이 없으며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나원침 (8723)

한국인들 너무 자제먹어 큰일이다

7경제도 어렵다는데

공여지치책 아니겠소?

버티려면 자제 살아야지 안그려?

담양 해돋이 보러간 40대 선천 묘소에서 목매 숨져

1일 오전 7시 55분께 담양군 대덕면의 한 야산에서 이모(47)씨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가 발견된 장소는 이씨의 선천 묘소에서 약 80m가량 떨어진 곳이다. 광주에 거주하는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9시께 해돋이를 보러 간다며 외출했다가 귀가하지 않아 가족들이 지난달 31일 실종 신고를 한 상태였다. 경찰은 이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담양=정재근기자 jgg@kwangju.co.kr

김태희-가수 비 열애설

성다발

○~한류스타 김태희(33)와 군 복무 중인 가수 비(31)가 교제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스타 부부의 탄생으로 이어질지 주목.

○1일 한 인터넷 매체는 비와 김태희가 나란히 차에 오르는 사진과 함께 지난 2011년부터 드라마와 CF에 동반 출연한 사실은 물론 군 복무 중인 비의 일거수일투족을 언급.

○이와 함께 일부에서는 일반사범보다 잦은 휴가를 받은 비의 부실 복무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당사자들은 열애설에 함구로 일관.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택시 지원되면 서비스 좋아지나”

시민들 비난속 버스업계 “일단 지켜보자” 관망

택시 대중교통 지원법 통과

이른바 ‘택시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시민들은 서비스 개선책 없는 재정적 지원은 예산만 낭비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그동안 강하게 반발했던 버스업계는 한발 물러섰다.

국회는 1일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대중교통법에는 대중교통이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이라고 규정돼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 범위를 확대해 택시를 포함시켰다.

또 택시정류장과 택시차고지도 버스정류장, 버스차고지와 마찬가지로

대중교통 수단 운행에 필요한 시설로 분류해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남겼다.

택시업계는 유가보조금 지원, 부가가치세·취득세 감면, 영업손실 보전, 통행료 인하 및 소득공제 등 연간 1조 9000억원의 지원을 예상하고 있다.

택시법이 통과되자 거세게 반발해 왔던 버스업계는 예상과는 달리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다. 실제 ‘택시 버스전용차로 진입 금지’, ‘택시에산 추

여수 여성 납치 강도사건 공개수사

여수경찰은 지난 27일 오후 6시께 여수시 학동 한 재래시장 공영주차장에서 발생한 여성 A(56)씨의 납치 강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난 31일부터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20대로 추정되는 남성 2명 중 한 명이 여수시 화강동 한 편의점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장면이 찍힌 편의점 CCTV 화면(사진) 등을 공개했다. 폐쇄회로 카메라에 찍힌 용의자는 어두운 색 패딩 점퍼와 모자를 착용했다.

한편 이들은 귀가하기 위해 자신의



외제 승용차에 타려는 A씨를 흉기로 위협해 뒷좌석에 태운 뒤 달아났다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현금지급기에서 A씨의 체크카드를 현금 57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대선 투표함 반출자

시선관위, 법적조치

광주 지역 한 아파트 단지에서 대선용 빈 투표함이 방치돼 있는 사진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라 유포된 것과 관련<본보 1월 1일자 10면 보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반출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광주시선관위는 1일 투표함 무단 반출자의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



EOS 6D

「세계 최경량* 풀-프레임」

행사장소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오거리 소니센터 맞은편(개논총판) 문의전화 062)383-3000

★ 보육교사는 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며, 영유아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교사입니다.

2013년도 제2기 **보육교사교육원 학생모집**

- 교육안내**
 - 교육기간 : 2013년 2월 18일(월) ~ 12월 중순(약 10개월)
 -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수업
 - 교육시간 : 주간반 오전 9:30~1:10 / 야간반 오후 6:30~10:10
- 제출서류**
 - 1. 본 교육원 입소신청서(소정양식) 1부
 - 2.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 3. 주민등록초본 1부
 - 4.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2매
 - ※ 원서접수시 전행료 : 5,000원
- 전형방법**
 - 서류 및 면접전형 : 2013년 1월 14일(월) 오전 10시
- 원서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및 마감일 : 2012년 12월 3일(월) ~ 2013년 1월 11일(금)
 - ※ 토요일, 공휴일은 휴무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2013년 1월 11일(금) 도착분에 한함)
 - 원서접수처 : 본 대학교 교육원 교하처
- 문의할 곳**
 - 교하처 김승호 선생
 - TEL 062)605-1112, 605-1023 FAX 062)572-0264
 - E-mail : krimsen@hanmail.net
 -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 소로 36번지 광신대학교 교하처

나도 이제 보육교사!

1년 과정 수료 후 어린이집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렴한 교육비(1년제 1,700,000원:2011년 기준)와 훌륭한 교수진이 준비된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을 지금 도전하십시오.

★ 보육교사 자격 및 진로 ★

보건복지부에서 위탁 선정된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소정의 과정(보육교사임성교육과정 1년)을 수료하면 보육교사직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등에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자나 여학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누구나 지원가능합니다.

(단,4주간의 현장실습(10월경)이 가능한 분야여 함)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